

엄지성 “유럽에서 좋은 활약으로 광주FC에 보답하겠다”

광주FC 환송식

광주FC의 에이스 엄지성이 박수를 받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 소속 스완지 시티 AFC 이적이 확정된 엄지성은 지난 5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환송식을 갖고 팬과 작별 인사를 했다.

광주 금호고를 졸업하고 2021시즌부터 구단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했던 엄지성의 해외 무대 성공을 기원하며 마련된 자리에는 광주 팬 200명, 강기정 구단주, 노동일 대표이사, 이정효 감독 그리고 엄지성의 은사인 최수용 금호고 감독 등이 참가했다.

엄지성은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팀에 남는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선수들이 더 많은 응원을 해줬다”며 “다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고 워낙 잘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시즌이 끝나고 다 웃고 있는 사진, 영상을 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즐기겠다”고 말했다.

엄지성의 이적이 확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리그와 코리아컵 그리고 구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치러야 하지만 팀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재정 규정을 달성하지 못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편치 못했던 엄지성은 따뜻한 환대 속에 마침내 웃을 수 있었다.

엄지성은 “광주하면 생각나는 게 너무 많다. 데뷔 때, 아픈 순간, 구단이 최고 성적을 거둔 것도 생각한다. 어려웠던 것을 선수들과 이겨낸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다”며 “앞으로도 그 추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외에 나가서 그 추억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해 유럽 진출에 성공했지만 힘든 순간도 많았다. 팀의 강등을 지켜봐야 했고, 잇단 부상에 고전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탈락, 올림픽 본선 진출 무산의 순간도 경험했다.

“나도 사람이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었다. 팬분들께서 경기장에 찾아와주신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엄지성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신 선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선수들과 함께 한 추억 잊지 못해 어머니·이정효 감독표 쓴소리 유럽에서는 안 듣도록 노력 언젠가 다시 광주로 돌아올 것

광주일보 통해 만난 KIA 이의리 꿈 포기하지 않고 꼭 이루길...

하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하게 그를 이끈 어머니와 이정효 감독은 오늘 엄지성을 만든 특별한 공로자다.

타고난 오른발잡이인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왼발을 강조하면서 독하게 훈련을 하도록 했고,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선수가 됐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 도중에도 엄지성의 이름을 부지런히 외치며 쓴 소리를 쏟아낸 인물이다.

엄지성은 “엄마가 울컥해 하시면서 축하하고, 고생 많았다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왼발을 쓰지 못했다면 광주에서 뛰면서 경험했던 순간의 많은 부분이 없을 것 같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스완지 시티로 이적이 확정된 광주FC 엄지성의 환송식이 지난 5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강기정 구단주, 노동일 대표이사, 이정효 감독, 최수용 금호고 감독 등이 엄지성, 광주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또 “감독님께서 화를 내시고 하는 부분에서 서운하거나 못 받아들이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 그만큼 성장하길 바라고 더 높은 선수로 가기 위해서 마음을 쓰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해외 나가면 이제 느낄 수 없는 부분이니 추억으로 생각하고 동기부여로 삼겠다. 해외가서는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웃었다.

새로운 도전, 자신의 부상 손흥민과 더 가까운 곳으로 간다는 점도 엄지성에게는 동기부여다.

엄지성은 “프로에 와서 100경기 이상 뛰고 좋은 기회에 해외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돼서 감회가 새롭다. 같은 나라니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달

려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손흥민의 연락을 기다리는 그는 좋은 모습으로 돌아와 ‘친구’ 이의리에게 연락을 할 생각이다. 엄지성은 광주일보의 특집 인터뷰를 통해 KIA 타이거즈 이의리를 만나, 친구가 됐다.

엄지성은 “먼저 연락이 와서 축하 인사를 받았다. 시간이 되면 얼굴 보자고 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에 한국 오면 연락해서 만날 생각이 다”며 “부상에서 빨리 회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좋은 순간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리면 좋겠다”고 이의리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엄지성은 광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선수가 돼 언젠가 다시 광주로 돌아오는 꿈을 꾸다.

엄지성은 “새 팀에서 슈팅이나 득점력 부분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는 도움이 많은데, 패스, 킥패스로 팀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엄지성이라는 선수를 응원해 주신 팬분들, 감독님, 코치님, 선수들, 광주FC 일원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제 “먼 미래지만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광주FC에 돌아와서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다. 그때까지 저를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며 “첫 골을 넣고 광주FC를 의미할 수 있는 세리머니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KIA 최형우 올스타전서도 ‘새 역사’

홈런 등 3안타 ‘최고령 MVP’

나눔 올스타, 드림에 4-2 승



나이를 잊은 KIA 타이거즈 4번 타자 최형우가 ‘최고령 MVP’ 스타 올스타’에 등극했다.

최형우는 지난 6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서 솔로홈런 포함 3안타 활약을 하면서 MVP에 선정됐다.

이날 나눔 올스타(KIA·LG·NC·한화)의 6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장한 최형우는 2회 첫 타석에서 솔로포를 날리는 등 맹타를 휘둘러 기차단 MVP 투표에서 21표 중 19표를 독식했다. LG 오스틴 딘이 2표를 받았다.

2011년 이병규(현 삼성 2군 감독·당시 36세 8개월 28일)의 기록을 넘어 40세 6개월 20일이라는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에 오른 최형우는 상금 1000만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최형우의 활약을 앞세운 나눔 올스타는 드림 올스타(두산·삼성·SSG·롯데·KT)를 4-2로 누르면서 3년 연속 승리를 기록했다. 나눔 올스타팀에 우승 상금 3000만원이 주어졌다.

0-0으로 맞선 2회초 KT 김민기의 초구 직구를 공략한 최형우는 그대로 중앙 담장을 넘기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LG 오스틴의 투런으로 3-0으로 앞선 3회초 2사 1루에서 최형우가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우측으로 공을 보낸 최형우는 2루까지 내달리면서 홈런과 2루타로 멀티히트에 성공했다.

3-2, 1점의 리드가 이어지던 8회초 최형우의 세 번째 안타가 터졌다.

최형우는 1사 2루에서 두산 김택연을 상대로 우

전 적시타를 날리면서 4-2 승리를 견인했다. 나눔 올스타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한 나성범은 우수 수비상 주인공으로 선정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12년 만에 KBO리그 올스타 무대에 오른 한화 류현진은 나눔 선발로 구자욱-정수빈-양의지를 상대로 탈삼진 하나 더한 삼자범퇴로 1이닝을 막으면서 승리 투수와 함께 우수 투수상을 받았다.

우수타자상은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삼성 데이비드 맥키년의 차지가 됐다. 우수 투수와 타자에는 300만원의 상금이 돌아갔다.

드림 올스타의 롯데 황성빈은 베스트 퍼포먼스상에 선정돼 3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한편 첫 올스타전에 출전한 KIA 김도영은 나눔 올스타 1번 타자 겸 3루수로 출전, 첫 타석에서 2루타를 만들며 5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수비상을 받은 나성범은 타석에서는 4타수 1안타를 기록했고, 박찬호는 첫 타석에서 병살타를 남겼지만 멀티히트를 장식했다.

어깨 염증으로 명단에서 빠진 정해영을 대신해 올스타전에 나선 장현식은 1이닝 1피안타 무실점, 최지민은 2명의 타자를 상대해 0.1이닝 1볼넷을 기록했다.

‘베스트 12’로 첫 올스타 마운드에 오른 전상현은 15개의 공으로 삼자범퇴를 장식했다.

한편 ‘팬투표 1위’ 정해영은 부상으로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올스타전을 찾아 팬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최형우가 지난 6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KBO 2024 올스타전에서 2회 홈런을 친 뒤 아들과 딸의 환영을 받으면서 홈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대표팀 감독 돌고돌아 홍명보

10년 만에 사령탑 복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흔들리던 한국 축구 감독 ‘홍명보’ <사진> 울산HD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을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지난 2월 16일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경질되고서 무려 5개월 만에 새 감독을 맞이하게 됐다.

홍 감독은 선수로 202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에 앞장섰고, 지도자로서는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신화를 쓴 한국 축구의 ‘영웅’이다.

2013~2014년 대표팀을 이끌며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나섰던 홍 감독은 이로써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하게 됐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해 크게 비난받은 경험은 북중미 월드컵에 도전하는 과정에서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달 2일 데이비드 바그너, 거스 포셋 등 외국인 감독과 면접을 진행하려고 유럽으로 출국했던 임영생 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귀국 후 지난 5일 홍 감독을 직접 찾아가 대표팀 사령탑 자리를 제의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이 이사가 ‘삼고초려’ 하듯이 홍 감독을 설득했다”면서 “홍 감독은 하루를 고민한 뒤 6일 저녁에 승낙 의사를 전했다고”고 말했다.

일단 2026년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까지는 대표팀을 이끌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더해 2028년 아시안컵까지 4년을 보장받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